

카드업계, 1분기 실적 악화 속 양극화도 뚜렷

주요 카드사 순익 전년비 감소
신한 5% 줄고 하나 63% 급감
조달비·연체율 상승 등 걸림돌
규모 작을수록 채권발행 부담

주요 카드사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순이익이 증가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조달비용, 연체율 상승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각 사별 규모에 따라 수익성 양극화도 뚜렷한 모습이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대·롯데·신한카드를 제외한 주요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카드)의 1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한카드의 순이익은 5% 하락에 그친 반면, 하나카드의 순이익은 63%나 급감하며 201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신한카드는 1분기 당기순이익 6414억 원을 기록하면서 '업계 1위'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올해 '애플페이 돌풍'



을 일으킨 현대카드를 비롯해 롯데카드의 1분기 성적표는 나오지 않았다.

삼성카드는 1분기에 순익 1455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했다. 이어 KB국민카드는 순익 82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하면서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우리카드 460억 원(전년 동기 대비 -46%), 하나카드 202억 원(-63%)을 기록했다.

카드업계에서는 1분기 업황 악화의 요인으로 조달비용 및 연체율 상승을 꼽고 있다. 여전채 가중금리(스프레

드)가 축소하면서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시장금리는 상승했으며 경기침체 여파로 연체율이 올라 대손충당금을 더 쌓았다는 것이다.

통상 카드업계는 조달한 자금을 2~3개월 뒤에 사용한다. 올 1분기 카드업계가 운용 및 용통에 사용한 자금은 지난해 11~12월에 조달한 자금이다. 지난해 4분기 여전채(AA+, 3년물) 금리는 연 6.1%까지 치솟은 바 있다. 당시 여전채스프레드는 1.92%포인트(p)를 기록했다.

연체율 상승으로 인해 대손비용이 늘어난 것 또한 순이익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카드사 5곳의 1분기 연체율은 ▲신한카드(1.37%) ▲우리카드(1.35%) ▲KB국민카드(1.19%) ▲하나카드(1.14%) ▲삼성카드(1.10%) 순이다.

지난해 말 대비 연체율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신한카드다. 3개월 사이 연체율이 0.33%p 올랐다. 대손충당금은 1910억 원을 쌓으면 전년 동기 대비 31.3%를 추가 확보했다. 이어 연체율

이 가장 적은 폭으로 오른 곳은 하나카드다. 지난해 말 0.98%에서 1분기 1.14%로 0.16%p 올랐다.

문제는 카드사의 규모에 따라 순익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달비용의 경우 카드사의 규모가 작을수록 부담이 커진다. 현재 신한·삼성·KB국민카드는 'AA+' 등급의 여전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우리·하나카드는 'AA' 등급의 여전채를 발행한다. 이달 AA+ 등급의 여전채는 연 3.96%까지 하락했지만 AA 등급의 경우 연 4.09%를 기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2분기 건전성 확보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2분기는 '가정의 달' 특수 등 카드사용이 증가하는 시기다. 관련 행사를 마련해 수익성 제고를 노리고 있다.

여전채에 한 관계자는 "같은 등급의 여전채를 조달하더라도 액면가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건전성 관리에 매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80개 다양한 특약 최대 100세까지 보장

한화생명이가 80개의 특약을 담아 개인별 맞춤 설계 가능한 신상품을 출시했다.

◆ '낙상', '삼킴' 등의 어린이 응급실 관련 특약 개발

한화생명이 핵심 3대 보장인 암·노·심 진단자금을 100세까지 매년 5%씩 증액하는 '한화생명 평생친구 어른이보험'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의 특징은 80개의 다양한 특약으로 개인별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개인이 원하는 특약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체증형 선택 시, 완납 후 최대 100세까지 매년 5%씩 진단자금이 증가해 물가 상승까지 대비할 수 있다. 일반보험과 달리 대부분 '비갱신형'으로 구성했다. '90일 면책기간'이나 '1년 미만 금액' 등의 조건 없이 즉시 보장을 개시한다.

어린이 환자의 응급실 내원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발생하는 '낙상', '삼킴' 등의 응급실 관련 다빈도 생활질환을 보장하는 특약도 새롭게 탑재했다.

오토바이 탑승사고 벌금·치료비 등 보장

삼성화재가 오토바이 탑승자를 위한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 벌금부터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삼성화재는 인터넷으로만 가입 가능한 '오토바이 전용 운전자보험'을 선보였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오토바이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한다. 운전자 벌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포함했다.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발생한 부상치료지원금도 보장한다. 특약 가입을 통해 오토바이 운전 중 발생한 교통 상해수술비, 골절, 인대 및 힘줄 파열, 안면열상 진단비 등도 담보 가능하다.

KB손해보험이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구조를 확대한 신상품을 공개했다.

◆ 표적 항암 약물치료비 2억1000만원까지 세 번

KB손해보험은 'KB 3.3.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플러스(Plus)'와 'KB 3.5.5 오!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플러스(Plus)'를 이달 초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KB3.3.5(3.5.5) 슬기로운 간편건강보험 플러스'는 암 발병 시 최초 1회만 보장하던 '표적 항암 약물치료비'를 최대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각각 7000만원씩 보장한다. 보장 질병은 ▲위암, 폐암, 간암 ▲림프종 및 백혈병 관련 암 등이다.

이복현 “보이스피싱 근절 노력, 상생금융 마중물 되길”

(금융위원장)

금감원·신한銀·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보이스피싱 피해지원·예방 맞손
신한銀, 3년간 300억 규모 출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이스피싱 근절 노력을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르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엄정 대응, 피해 방지, 피해자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정보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금융거래는 한층 편리해졌지만 보이스피싱 위협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신한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업무협약은 민생을 침해하는 보이스피싱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협약식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진



2일 오후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및 예방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옥동 신한금융그룹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피해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과 심리상담·법률지원, 금융소비자 대상 피해예방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추진 등을 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비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지원과 심리상담 등도 포함하

고 있어 피해자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피해 예방교육과 대(對)국민 홍보활동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고금리 고물가 등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만큼 이번 협약이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사회공헌 사업이 상생 금융의 마중물이 돼 우리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3년간 총 30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먼저 보이스피싱 피해자 생활비 지원을 위해 180억 원을 투입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한다.

이어 심리·법률상담에 30억 원을 지원한다. 금전 손실 등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우울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리치료 진행한다. 또 예방교육·보험제공에 15억원이 쓰인다.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층, 보이스피싱 피해에 취약한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대국민 홍보·캠페인·정책개발 등에 75억 원을 투자한다. 쇼핑몰, 대중교통 광고스크린을 활용해 생활밀착형 홍보를 실시하고 영화 등 홍보매체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BNK금융, 임직원 생활 속 ESG실천 유도

'ESG 실천하는 날' 캠페인 추진
일회용품·잔반 제로데이 진행

BNK금융그룹이 그룹 경영철학인 '바른 금융'의 실천을 위해 모든 임직원과 함께 'ESG 실천하는 날'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BNK는 일회용품 줄이기와 잔반 남기지 않기 등 생활 속 ESG 실천 방법을 공유하고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ESG 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자발적인 동

참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매월 첫번째 금요일과 세번째 금요일을 ESG 실천하는 날로 정하고 각각 사내 카페에서 텀블러 이용을 권장하는 일회용품 제로데이와 사내 식당에서 잔반을 남기지 않는 잔반 제로데이를 진행한다.

캠페인에 동참하는 임직원에게는 커피 등 각종 음료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확산을 위해 월별 캠페인



'ESG 실천하는 날' 캠페인에 참여한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가운데)이 임직원들과 포즈를 취했다. /BNK금융

횟수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은 "생활 속 ESG 실천을 위한 바른 행동들이 환경문제의 해결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

이라고 생각한다"며 "BNK는 그룹 차원에서 추진 중인 ESG 경영의 실천과 확산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